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9일 월요일 음 1월 21일 (13물)

백록담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에는 구름이 많다. 아침 최저기온은 3~5°C, 낮 최고기온은 10~12°C로 예상된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Humidity (강수 확률). Rows show humidity percentage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and Temperature (달뜸, 달짐). Rows show sunrise/sunset and temperature ranges.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and Night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and Status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中 왕이 “이란사태, 일어나선 안될 전쟁”

8일 전인대 외교 기자회견서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 전쟁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라며 즉각적인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자회견. 연합뉴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8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교 분야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 외교 정책 방향 등을 이같이 설명했다.

왕 부장은 먼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란 전쟁)이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금탁 제2사회부장·서귀포지사장

오랜만에 제주에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온다. 10년 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졌다는 내용이다.

제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잠정 0.87명으로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0년 초,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이듬해인 2021년 0.95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돌았고 2024년 0.83명까지 떨어졌다.

제주를 포함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처음 반등했다. 이어 지난

베이비부머 2세들이 보내온 ‘봄소식’

해 0.80명으로 2년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의 하나로 베이비부머 세대(1차 1955~1963년, 2차 1964~1974년)의 자녀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들었다.

이들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 농업업 1차산업의

줬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2세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짊어졌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아무리 산업화가 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인간의 영역을 넘을 수는 없다.

이들 위해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사회적 양육환경과 부모들의 안정적 소득이 필수다. 문제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제주에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들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제주의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 농업업 1차산업의

고령화, 2차 산업의 부재, 제주관광과 직결된 3차 산업, 그리고 이들을 연계한 4·5·6차 융복합산업의 절대적 부족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중장기적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제주의 미래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새봄, 움트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때다.

열린마당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되자



송명아 제주도 소상공인정책팀장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의 급변으로 지역 상인들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점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운영의 성과와 성공 사례의 전파를 통해 가치 지향적인 소비 촉진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갈등을 넘어 제주 환경생태의 미래를 묻다



오을탁 대한민국의전물건경유학회 제주도지부

환경이란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아 가는 제주에서 생태도시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는 이유 역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일 것이다.

제주의 자연적 가치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아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라는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했다.

그러나 제주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관광객 증가와 인프라 확충, 각종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먼저 숲과 산림, 습지 등 생명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보전 정책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활공간과 생태계 기능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생태통로와 녹지 연결성을 확보하는 생태 도시 정책도 필요하다.

Advertisement for 'Gangul Myeomok' (감굴묘목) featuring 'Yura Joeng' (유라조생) and 'Cheonhehang' (천혜향) products.

Advertisement for 'Gangul Shinpumjong Bonyang' (감굴 신품종 분양) for 2026, listing various apple varieties like 'Man-gamryu' (만감류) and 'Gungcheon' (궁천).

Advertisement for 'Gangjeongmyeong Jeongnamnongjang' (강정종묘 정남농장) featuring 'Shinpumjong Umyangmyeong Potomye' (신품종 우양묘 포트묘) and 'Dongjukmyeong' (등록묘종).

Advertisement for 'Jeju Tongsin Gijiban Gukchok Hanlaga Chaekimjipnida'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by Hanra Jeonseol (주) (한라전설(주)).